

강천산 군립공원, 대표 관광지 입증

순창군, 문체부·한국관광공사 ‘2025-26 한국관광 100선’ 선정

순창의 대표 명소인 강천산 군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5-26 한국관광 100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며 전국적 명성을 쌓아온 강천산은 2015-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천산은 계곡을 따라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웅장한 기암괴석과 절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한다. 특히 120m 높이에서 장쾌하게 떨어지는 구장군 폭포와 병풍처럼 펼쳐진 병풍폭포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자연이 빚어낸 장관을 선사한다. 아울러, 강천산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봄에는 신록이 물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 즐거움을 주며, 가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기단풍이 찾아오고, 겨울에는 하얀 설경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또 다른 강천산의 매력은 왕복 5km



순창의 대표 명소인 강천산 군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5-26 한국관광 100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에 이르는 맨발산책로다. 도시생활에 지친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맨발로 자연을 직접 느끼며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새롭게 조성된 강천산 오토캠핑장은 일반 야영장 11개면과 개수대, 난파 샤워장, 화장실, 2층 휴게실, 모래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또한, 캠핑장 이용객에게는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가 무료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취약계층 명절 지원금 전달

1073명에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임실군이 올해로 7년째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 지원금’을 전달한다. 군은 민선 7기인 2019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취약계층을 위해 15만원에서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에 난비 역할을 해내며,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설 명절에도 임실군은 이날 20

일부터 24일까지 취약계층 955가구 1,073명에게 1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상위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인 가구는 15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 3인 가구 이상일 경우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이번 상품권은 12개 읍·면에 상품권을 교부하고, 읍·면사무소 방문 또

는 가정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도 어려운 지역민 1,963가구 2,234명에게 총 3억800여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군은 설과 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며 “꾸준히 실천해 온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챌린지 동참

최영일 순창군수는 2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밑거름 캠페인이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희태 완주군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날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북 유치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다음 주자로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를 지목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꼭 성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군민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챌린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 박차

남원시, 폐교된 서남대 남원캠퍼스 재생 통해 설립 추진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 설립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11월 전북대학교가 선정된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하나로, 시는 폐교된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재생을 통해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를 설립,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학생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K-컬처, K-커머스(이코노미 2개 학부를 신설해 학부당 150명씩 총 1,200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학생 및 산업인력 등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국어학당 운영,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 조성해 남원 특화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등이 들어설 전북특별자치도 동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 복합 단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캠퍼스 개교를 위해 2024년 3월 22일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를 매입하고 캠퍼스 부지 내에 각종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캠퍼스 환경개

선을 완료했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캠퍼스 경계 울타리 설치와 캠퍼스 내부 주요도로 CCTV 설치, 차량의 통행 차단을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을 위한 부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교환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전북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내에 부지 교환을 통해 캠퍼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전북대도 2027년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남원시는 2025년 시민 개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를 정비할 계획으로, 캠퍼스 정문 진입로 우측으로는 도시숲 공원을 조성하고, 좌측으로는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울치천 복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과 스탠드를 정비하여 남원시민들이 찾아와 걷고, 뛰고, 쉴 수 있는 시민 공유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사진)은 “시는 2024년 구)서남대 남원캠퍼스 매입과 환경정비를 완료한바 2025년에는 시민을 위한 개방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2027년 개교 이전 시민들에게 캠퍼스를 우선 개방하여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5~30일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구축

남원시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설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이 무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에 대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남원의료원(620-1114)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비응급 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상향, 병·의원과 보건소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현황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 남원시청 홈페이지와 남원시보건소(620-791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을 통해서도 비상진료기관, 약국 운영 현황 등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올해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확대

남원시보건소는 2025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임신 및 출산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며, 올해부터는 검진비 지원 대상을 기존 부부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했다.

또한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별도의 비자 없이 신청할 수 있고 15~19세의 미성년자도 부부(사실혼 포함)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횟수도 기존 평생 1회에서 3회로 확대,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등 주요 주기별로 1회씩 인당 최대 3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마화룡 순창군의회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순창군의회는 21일 열린 제2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화룡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 수립 및 실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물가, 고유가, 고회환을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뿐 아니라 순창군에서도 자체 시행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최용수 순창군의회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순창군의회는 21일 열린 제2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민들에게 갑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농업인의 영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이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쌀 자급률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언급했다. 더불어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국내·외 수급 관리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